# 나주시 문평천 320m 자전거길 신설

## 행안부 국토 종주길 정비 공모 선정
## 느러지전망대 길 등도 준공 앞둬
## 영산강 300리 자전거길 조성 탄력

자전거길이 완성될 나주 문평천 영산강 합류부 구간. 〈나주시 제공〉

나주 영산강 문평천에 자전거길이 이어지면서 '영산강 명품 삼백리 자전거길' 조성이 탄력을 받게 됐다.

나주시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 '2023년 국토 종주 자전거길 정비 사업' 대상지로 영산강 문평천 구간이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사업 선정을 통해 시는 특별교부세 4억원을 확보해 올해 하반기부터 국토 종주를 위한 자전거길을 신설한다.

영산강에 합류하는 다시면 가흥리 문평천에서 단절된 320m(폭 3m) 구간이 해당한다. 이곳에는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받쳐지지 않은 '외팔보'(켄틸레버) 방식으로 자전거길이 연결된다. 해당 구간은 지난 2020년부터 수해 예방을 위한 문평천 재해복구공사가 진행되면서 하천 횡단교량(회룡교)이 철거돼 단절돼왔다.

이후 기존 노선 대신 하천 농로를 우회하거나 곡선으로 차도에 이어지면서 자전거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나주시는 문평천을 가로지르는 자전거길이 완성되면 민선 8기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영산강 명품 300리 자전거길' 조성이 힘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해 11월부터 영산강 300리 자전거길 조성사업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나주시도 올해 5월부터 국가 하천인 영산강·지석천 자전거길 공사 실시설계 용역에 들어갔다.

시는 실시설계를 마친 뒤 오는 2025년까지 국비 20억원을 투입해 '산포배수장~지석천변길', '덕천들~영산강변길' 단절 구간을 연결하고, 오래된 '나주대교~영산강 저류지' 구간을 보수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영산강 만봉천 자전거길 사업 구간인 '동강느러지전망대 자전거길'과 '운곡동 자전거길'이 각각 올해 7월과 내년 12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국토 종주 자전거길 정비사업을 통해 부분적으로 단절된 자전거길 구간을 잇고 원도심과 혁신도시를 연결하는 네트워크형 명품 자전거길을 조성할 계획"이라며 "영산강 명품 300리 자전거길 조성을 통한 대회 유치와 자전거 관광객 유입 등 지역 관광·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 담양군 29일까지 하반기 공공근로 57명 모집

담양군이 오는 29일까지 '2023년 하반기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공공업무 지원, 환경정비 등 모두 44개 사업을 대상으로 57명을 모집한다.

만 18세 이상 근로할 수 있는 담양군민이면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 소득 70% 이하(재산 4억원 미만)면 신청할 수 있다.

신분증을 가지고 주소지가 있는 읍·면 사무소에 찾아가 신청하면 된다.

신청 이후에는 신청자의 가구소득, 재산, 일자리 사업 중복 참여 여부 등을 확인해 상위점수 순서에 의해 참여자를 선발한다.

장기 실직자와 여성 가장, 장애인, 북한 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에는 가점이 주어진다.

단 최근 3년 중 2년 이상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1년간 선정 대상에서 배제된다.

일은 오는 7월 말부터 11월까지 5개월 동안 한다.

자세한 내용은 담양군 투자경제과(061-380-3137)나 각 읍·면 사무소 일자리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담양군 관계자는 "공공 근로사업이 취업 취약계층과 청년 미취업자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고 취업을 위한 좋은 경험이 됐으면 한다"며 "사업 참여 전 안전교육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 등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

# 장성군 첨단로컬푸드 직매장 개장 1년 간담회

김한종(가운데) 장성군수가 최근 장성로컬푸드 첨단직매장에서 복숭아 재배 농가와 간담회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장성군 제공〉

로컬푸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는 장성군이 '장성로컬푸드 첨단직매장' 개장 1주년을 맞아 복숭아 재배 농가와 간담회를 열었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지난 22일 장성로컬푸드 첨단직매장 2층 교육장에서 열린 '복숭아 재배 농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올해 재배·유통 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지역농협 조합장과 장성먹거리통합지원센터 관계자, 공무원 등 20여 명도 참석했다.

장성에서는 114가구가 47.5ha 규모 복숭아 농사를 짓고 있다.

장성은 일교차가 큰 날씨 덕분에 복숭아 과육이 단단하고 당도가 높은 특징이 있다.

장성군은 지난해 과수 생력화 장비 지원, 친환경 해충 방제 등 6개 사업에 10억5000만 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신규 과원 조성·과원시설 지원 ▲저온경감시설 및 묘목 지원 ▲생산기반 구축 ▲신소득원예특화단지 조성 ▲스마트팜 전문단지 조성 인프라 구축 ▲장성군 온라인 쇼핑몰 '장성몰' 구축 운영 ▲과일 간식 확대지원 등 7개 사업에 29억8000만원을 투입한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 측량 720매·이동 9600매
## 장흥군 지적자료 전산화

장흥군이 종이로 된 지적자료의 전산화 작업을 최근 마무리했다고 25일 밝혔다.

전산 자료로 만들어진 지적자료는 지난해 생산된 지적측량결과도 720매, 토지이동결의서 9600매이다.

장흥군은 종이 문서를 전산 자료로 전환하고 자동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했다. 장흥군은 현재까지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 당시 작성된 지적원도, 임야세부원도, 지적(임야)도를 포함해 토지대장(부책식·카드식), 측량결과도, 토지이동결의서 등 중요 기록물 약 130만매를 전산화해왔다.

영구 보존할 문서를 전산화하면서 각종 재난·재해 등으로 인해 해지거나 없어지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

또 지적기록물 열람과 확인을 위한 절차를 간소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장흥군은 내다봤다.

장흥군 관계자는 "영구 보존 문서인 지적자료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군민 재산권 보호와 지적행정의 공신력을 높이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 강진군, 마량항 낚시어선 7척 유치

강진원(맨 오른쪽) 강진군수가 낚시어선에 승선해 낚시 체험을 하고 있다. 〈강진군 제공〉

## 군민 등 100여명 참석 출항식

강진군이 남해안 해양레저 거점도시 만들기 전략 가운데 하나로 꾸준히 추진해온 바다낚시 어선 유치가 드디어 첫 결실을 맺었다.

강진군은 마량항에서 바다낚시 어선 출항식을 열었다고 25일 밝혔다.

군민 등 모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출항식은 타지역에 있는 바다낚시 어선 7척 유치를 기념하고자 마련됐다.

그동안 마량항에서는 일시적으로 바다낚시 어선이 운영된 적은 있지만, 장기적 혹은 정기적인 운행이 드물어 바다낚시 어선 활성화가 이뤄지지 않았다.

타지역에서 수년에서 길게는 수십 년 동안 머물렀던 어선들은 생활 기반 및 선적항 이주로 인한 낚시객 모집, 새로운 낚시포인트 개발 등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불확실성 속에서 선뜻 마량항으로 이전했다고 군은 전했다.

군은 바다낚시 어선 유치로 인한 인구유입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했다.

바다낚시 어선 7척 유치로 지역경제 유발 효과는 연간 7억원, 관광객은 3000여명 이상으로 군은 추산했다.

군은 5년 이내에 100척의 낚시어선 유치 목표를 세웠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kwangju.co.kr

# 농협 함평군지부·함평축협 '100년 농촌운동'

농협 함평군지부와 함평축협 임직원들이 최근 함평 나비축제장 등을 찾아 깨끗한 농촌을 만들기 위한 '100년 농촌운동'을 하고 있다.

농협 함평군지부와 함평축협 임직원 30여 명이 살고 싶은 농촌을 만들기 위한 '100년 농촌운동'을 최근 벌였다.

참가자들은 함평 나비축제장과 함평천 등을 찾아 쓰레기를 줍고 잡초를 뽑으며 깨끗한 농촌 만들기에 나섰다.

농협은 농촌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100년 농촌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범국민 활동 '100년 농촌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광재 농협 함평군지부장은 "농촌의 깨끗한 환경은 국민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라며 "미래로 가는 농업, 풍요로운 100년 농촌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지속해서 펼치겠다"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